

역사 속 저항의 몸짓과 분노의 항변



‘저항자들의 책’
앤드루 사오 외 지음

#. ‘아! 슬퍼요/아침 하늘이 밝아 오며/달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저녁 노을이 사라질 때면 탕탕 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아침 하늘과 저녁 노을을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오빠 언니들은 책 가방을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도둑질을 했나요/강도질을 했나요/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침실도 안 먹고/저녁도 안 먹고/말없이 쓰러졌나요/...’ <‘강명희’ 오빠와 언니는 왜 총에 맞았나요’ 중에서>

정말 원문에 실려 있었을까. 책장을 넘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앤드루 사오·오스트리아 지음 ‘저항자들의 책’은 억눌린 민중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지식인들의 저항, 세상을 바꾸려던 혁명가들의 주장을 모아놓은 책이다. 민중이 권력에 저항해온 사례는 세계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만큼 책 내용을 감안하면 국내 사례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출간된 비슷한 종류의 책들에서 국내 사례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언

어가 다른데다, 영어권을 위주로 위 어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책은 ‘지리적·역사적 균형’을 맞춰 집필했다는 저자들의 설명대로 국내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저항 운동 사례를 담고 있다.

책은 기원 전 1813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4000년의 시대를 아우르며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뒤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저항 운동의 변천사를 엮어 냈다.

카를 마르크스, 에밀 졸라 등 저명한 사상가 저술만 담긴 게 아니다. 기원전 1813년, 귀족에게 당나귀를 빼앗기고 매질까지 당한 뒤 파라오에게 울린 이집트 한 가난한 농부의 탄원서부터 2009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구두를 던져 파장을 일으킨 분타다르 알자이디 기자의 ‘내가 부시에게 구두를 던진 이유’라는 글까지 다양한 저항자들의 흔적이 6개의 장으로 나누어 담겼다.

198년 만적의 난을 시작으로 1894년 동학농민운동, 1980년 광주 민주항쟁, 1984년 발표된 박노해의 시 ‘노동의 새벽’ 등도 동아시아에서 민중들이 일으킨 주요한 투쟁 사례로 꼽혔다.

가슴까지 전율시키는 연설문이



책에는 권력과 구속에 맞서던 시위대의 낙서 등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뒤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저항 운동의 흔적을 엮어 냈다.

나 법정 최후 진술뿐만 아니라 살인 살아가 고단했던 민중이 휘갈겨 쓴 시, 권력과 구속에 맞서던 시위대의 낙서나 대자보, 슬로건에 대중가요, 감옥에서 쓰인 팸플릿 등의 자취까지 찾아내 실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 설명도 빠트리지 않았다. 해당 글이 발표된 시대 배경, 인물 설명 등을 덧붙여 글이 담고 있는 정신과 역사적 의의를 보다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귀족이며, 당신은 약탈자입니다. 청송밭을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대한 두려움도 간직한 저의 탄원을 막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신은 제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침묵하던 자가 자신의 곤경을 말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말하는 행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쓴 이집트 농부의 탄원서를 읽다 보면 민중이 권력에 저항

해온 ‘뿌리’가 4000년 전부터 존재 했음을 알 수 있다.

또 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의 잔학 행위를 비난한 사에키 진자부로와 시, 1960년 4월 19일, 당시 서울수송 국민학교 학생 강명희씨가 쓴 ‘오빠와 언니는 왜 총에 맞았나요’라는 시는 다시 읽어도 머리에 피가 솟는다. 저자들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위해 싸우는 군대’는 끊이지 않고 등장했으며, 이들이 일으키는 계급 간 균열은 정치, 사회, 경제적 개혁을 부채질하면서 인류 역사의 진보를 이끌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시대 상황과 겹쳐지는 듯하다는 생각이 나올만한 글도 적지 않다. 이런 성격 때문인지 훗날 넘겨 고만 고만 시대가 후딱 지나간다.

<쌤앤피커즈·2만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조선인들 내면에는 훌륭한 본성이 들어 있다”

‘조선, 1894년 여름’
에른스트 폰 헤세 지음



이방인의 눈에 비친 110여 년 전 우리의 옛 모습을 오늘에 읽는 것은 우리 역사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곤 한다.

‘조선, 1894년 여름’은 ‘오스트리아인 헤세-바르텍 여행기’라는 부제처럼 오스트리아 여행가가 1894년 여름 일본을 떠나 조선을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독일에서 정리해 낸 책을 옮긴 것이다.

당시 조선은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갑오개혁이라는 회오리에 휘말리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고 백성들은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다. 저자는 이 시기 부산을 거쳐 서울 등을 둘러보면서 경험한 다양한 조선 풍경을 31개 장으로 나눠 묘사하고 있다.

헤너를 “노출된 풍만한 가슴과 옆이 터진 짧은 치마

를 입은 모습”으로 설명했고 서울을 “25만명 가량이 거주하는 대도시 중에서 5만여명의 집이 초가지붕의 흙집인 곳”,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주민들이 흰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보다 더 더럽고 똥 천지인 도시”로 묘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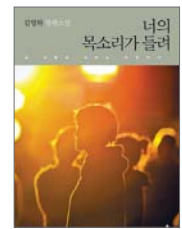
비참한 조선 상황을 전하면서 “조선인들의 내면에는 아주 훌륭한 본성이 들어 있다. 진정성이 있고 현명한 정부가 주도하는 변화된 상황이라면 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서양인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편향성이나 일부 경험 등을 토대로 전체 조선을 평가한 듯한 내용 등은 아쉬운 부분이다.

<책과 함께·1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상에 버려진 고아들의 슬픔과 상처

‘너의 목소리가 들려’
김영하 지음



소설가 김영하가 ‘퀴즈쇼’ 이후 5년만에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신작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세상에 버려진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소녀가 채 가지 않은 엄마에게서, 그것도 고속버스 화장실에서 태어난 아이 제이다. 어릴적부터 제이와 함께한 또 다른 아이는 동규다. 말을 잃었다가, 초등학생이 된 후 갑자기 말문이 트인 아이.

제이가 세상에 고아인채로 남겨진 아이라면 동규는 집에서 가출한 자발적 고아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또 다른 고아들이 작품의 주인공이다.

소설에는 제이를 본 순간 그를 사랑하게 된 목란, 할

리데이비슨을 타고 제이를 쫓는 경위 박승태, 제이에게 집과 먹을 것을 내어주는 Y까지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소설의 하이라이트는 길위에서 살아갈 것을 예감한 제이가 길에서 만난 고아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광복절 대풍자를 행하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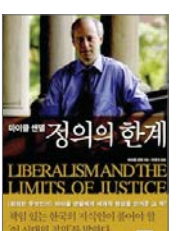
도시 한복판을 공명을 내지르며 질주하는 아이들, 그들을 쫓는 게이 경찰 승태, 한때 오토바이 폭주족이었던 자동차 폭주족들이 얽히면서 이야기가 빠르게 흘러간다.

김씨는 동인문학상, 황순원문학상, 이상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지난 2010년부터 팟캐스트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을 운영 중이다.

<문학동네·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의의 원칙·자유·평등 관계

‘정의의 한계’
마이클 샌델 지음



‘정의의 한계’는 2010년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에 돌풍을 일으켰던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지난 1982년 저서다.

샌델은 이 책에서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1971년)을 표적으로 삼아 비판을 전개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공동체주의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 공동체주의의 4대 이론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

게 된다. 말하자면 샌델이 전 세계에 이름이 알려지게 된 출세작이기도 하다. 이 책은 ‘공동체주의자’라는 샌델에 대한 오해를 넘어, 샌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대 표작으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담 아지지 못한 정의의 원칙, 정의와 자유, 평등의 관계를 보여준다.

<델론·2만8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상 곳곳에서 찾아낸 아름다운 삶

‘지금 나의 삶은...’
소 스텔라 수녀 지음



성 베네딕도회 수도자로 지난 40년간 가난한 이들의 삶을 돌봐온 소 스텔라 수녀가 삶에 대해 성찰과 지혜를 담은 에세이집을 내었다.

저자는 우간다와 인도 등에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용산 참사 현장과 제주도 강정 마을을 찾아가 하면 이탈리아 주민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도움이 손을 내밀어왔다.

소 스텔라 수녀는 이런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하는 이유와 삶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담담히 풀어냈다.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세상을 비추는 조그만 빛이 될 수 있도록’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되물어 하는 계기가 된다. <책 읽는 수요일·1만3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하버드 졸업생, 보스턴 교도소 사서되다

‘교도소 도서관’
아비 스타인버그 지음



흥악법들이 들끓는 교도소에도 도서관이 있다. 물론 그들이 모두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을 찾은 건 아니다. 그곳에서는 일반인들이 상상 못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

‘교도소 도서관’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저자 아비 스타인버그가 보스턴 교도소 도서관 사서가 되면서 겪은 일들을 담은 소설 형식의 에세이다.

책 속에는 회고록을 쓰려는 포주, 젊은 시절 교회 앞에 버렸던 아이를 교도소에서 만나게 된 스트리퍼, 요리 프로그램 진행자가 되고 싶어하는 조직폭력배 등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저자가 각각각색의 재소자들과 만들어가는 에피소드는 때론 유쾌하고, 때론 감동적이다.

책은 성장소설로도 읽힌다. 대학에서 촉망받는 엘리트였지만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저자가 재소자들과 접하면서 삶, 세상

을 알아간다. ‘달로’, ‘일음의 책’ 등을 펴냈고, 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 공부한 소설가 한유주가 번역을 맡았다. 역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 책은 아비 스타인버그의 ‘체험, 삶의 현장’이자, ‘인간극장’이며 ‘베스트극장’이자, ‘주말의 명화’다.

미국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음·1만3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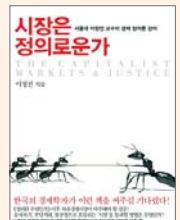
신간

▲100개만으로 살아보기=최소한의 물건으로 살아본 미국 한 평범한 가정의 유쾌한 체험기. 미국 샌디에이고의 데이브 브루노가 1년 동안 100가지 물건만 가지고 살 것을 결심한 뒤 도전하면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의미 있게 다가온다. 실생활에서 매일 필요한 물건 14개만 충분하다는 사실은 놀랄만하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참여한 행복 프로젝트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침림출판·1만3000원>

▲그해 봄은 더디게 왔다=전쟁의 여인이 가지지 않은 1947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배경으로 토마스 와 츠반, 베티 등 세 아이가 우정과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이 담담하게 그려진다.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은 세 아이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어루만지며 희망을 끌어안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가는 이야기다. 저자 페터 반 게스텔은 이 작품으로 황금연필상 등 네덜란드 3대 문학상을 거머쥐었다.

<둘베개·1만3000원>

▲다윈의 동물원=어렵고 딱딱하기만 한 자연과학 이론을 살짝 비틀어 일상과 전문 지식의 경계를 허무는 유쾌한 상상이 눈길을 끈다. 고등학교 국어 교사인 김보일씨가 ‘먹이를 화장품으로 쓰는 물고기’, ‘욕망의 삼각형 이론과 초과리’, ‘북극곰의 조상은 원래 무슨 색깔이었을까’, ‘가족 산업과 원칙과 인간의 맛’, ‘원숭이는 이코노미 애니멀’ 등 다윈의 진화론에서 출발한 다양한 진화심리학의 논제를 100여개 꼭지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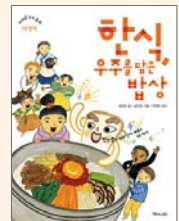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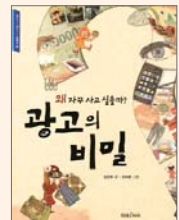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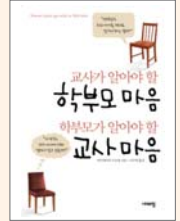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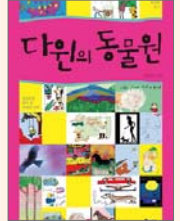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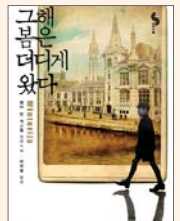
뉘 한국 사회 현실에 맞춰 풀어냈다. <북멘토·1만5000원>

▲시장은 정의로운가=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인기를 모은 뒤 한국의 원로 경제학자 이정진 서울대 교수가 내놓은 경제 정의론 강의서. 추가폭락, 물가상승, 빈익빈 부익부, 만성적 실업 앞에서 자본주의 시장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승자 독식, 부당거래, 불공정으로 흔들리는 시장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한다. <김영사·1만4000원>

▲한국 그림의 전통=한국회화사 연구서이자 개설서. ‘한국 회화의 전통’을 재편집한 것으로, 한국회화사를 총론, 산수화, 풍속화, 회화교섭 등의 분야로 나눠 감상과 현대대신, 객관적인 연구와 검증용을 넣어 접근했다. 6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화려한 컬러 도판이 읽는 재미를 더한다. 저자 안취준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사회평론·2만8000원>

▲교사가 알아야 할 학부모 마음 학부모가 알아 할 교사의 마음=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요즘, 학부모와 교사간의 소통도 그만큼 중요해졌다. 저자가 수년 간 교사이자 학부모로서 경험하고 주변에서 보고 들은 사례를 바탕으로 부모와 교사의 역할을 설명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바람직한 소통 방법, 대처법을 제시한다. <시대의창·1만5000원>



▲광고의 비밀=학년별로 흩어져 있는 과학·사회 교과서 내용을 주제별로 묶어 원리와 개념, 실제 적용까지 다루는 ‘교과서가 쉬워지는 교과서 시리즈’중 하나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길러주는 어린이용 사회과학도서. 광고와 소비, 미디어와 상품, 생활 속의 경제학 등 세 분야로 나눠 합리적인 소비, 미디어의 역할과 파급력, 생활 속을 파고든 자본주의 경제의 모습 등 다소 무거운 주제를 쉽게 풀어낸다. <미래아이·1만800원>

▲우주를 여는 비밀 열쇠=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과 그의 딸인 소설가 루시 호킹이 함께 쓴 과학 모험소설을 원작으로 한 학습만화. 소년 조지가 우주 여행을 떠나는 열개로 자연과 과학,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준다. <주니어RHK·9800원>

▲학교 처음 가는 날=유치원을 졸업한 뒤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선생님이 무서우면 어떻게 하지, 화장실은 어떻게 가지 등 모든 게 무섭기만 하고 고민도 많다. 입학 전 학교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없애고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 첫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한다. <국민서관·1만2000원>

▲치즈를 찾아서=생쥐 아치볼드가 엄마가 구해온 빵과 치즈 부스러기를 먹고 살다 직접 음식을 구하려 세상으로 나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험난하고 두렵지만 좌절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과 독립에 관한 지혜를 일러준다. <세움출판·1만5000원>

▲한식, 우주를 담은 밥상=우리 밥상에 담긴 맛과 뜻을 소개한 ‘피어라 우리문화’ 시리즈 3권. 한식의 역사와 밥상의 기본이 되는 양념과 상차림에 관한 내용을 비롯, 제철 음식, 나물, 발효음식, 고명, 다과, 한식의 오늘, 역사 속의 요리책을 찾아서 등으로 나눠 밥상에 담긴 맛·뜻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우리 밥상 고유의 맛과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해와나무·1만3000원>

어린이 책꽂이